

FINAL 7

읽을 때는 관계를 잡고,
풀 때는 근거를 확인한다.

언어와 매체 선택

10개년 수능·2027학년도 모의평가 비교

15가지 독해 기술 · 12가지 실전 TIP

선생님 풀이 시범 · 독립 창작 45문항

제이든양 선생님

수능 직전, 한 문제의 판단을 바꾸는 실전 학습

본 수험서는 화려한 디자인보다 학습 내용의 충실함에 집중했습니다.

기출 원문을 재수록하지 않은 독립 창작 연습 자료

RESEARCH / 제작의 근거

이 책은 이렇게 만들었어

10개년 수능과 2027학년도 6·9월 모평을 비교해, 시험장에서 반복해서 요구하는 판단을 수업으로 옮겼어.

이 책은 “올해 무슨 소재가 나올까”를 맞히려는 책이 아니야. 소재가 바뀌어도 계속 나오는 판단을 먼저 익히도록 만들었어. 법 지문에서는 조건과 예외, 인문에서는 관점 비교, 과학·기술에서는 변수와 적용 범위가 특히 중요할 수 있어.

우리가 참고한 시험의 범위

분석 범위	문항 기록	이 책에 활용한 내용
2017~2021 수능	매년 공통 45문항	분야별 사례·발문 기능·선택지 판단
2022~2026 수능	공통 34 + 선택 각각 11	독서·문학 공통 판단과 화작·언매 특징
2027 6월·9월 모평	각 회차 공통 34 + 두 선택 각각 11	최근의 적용·비교·문학·매체 판단 사례

두 선택과목을 모두 포함한 자료 기록은 수능 505문항, 모평 112문항이야. 실제 한 수험생이 한 시험에서 푸는 문항은 45개야.

분석 결과를 학생용 수업으로 바꾼 방법

기출의 질문과 선택지에서 반복되는 행동을 찾고 → 학생이 흔히 놓칠 조건을 적고 → 15가지 독해 기술로 이해하는 힘을 만들고 → 12가지 TIP으로 실전 행동을 정리하고 → 완전히 새로운 문항에서 스스로 시험해 보게 했어.

핵심 목표

한 문제를 우연히 맞히는 게 아니라, 왜 정답인지 지문 속 근거를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점수 상승을 보장할 수는 없어도 공부할 순서를 명확히 할 수는 있어.

학습 기술 01 | 긴 문장도 한 번에 다 이해하려 하지 마

너도 이런 적 있지? 긴 문장을 끝까지 읽었는데 누가 무엇을 했는지 안 남는다면?

[짧은 예문] 학교는 예산이 승인되었더라도 안전 점검을 통과하지 않은 시설의 개방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제이든양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 먼저 주인공을 찾아. 누가 결정하지? 학교야. 다음으로 실제 행동을 찾아. 개방을 보류한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언제 보류하나’를 붙여. 예산 승인은 받았어도 안전 점검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야. 이렇게 ① 주체 ② 행동 ③ 조건 순서로 읽으면 긴 문장이 짧아져.

[이것만은 조심!] “예산이 승인됐으므로 시설은 개방된다”라고 말하면 조건을 빠뜨린 거야. ‘-더라도’, ‘-않은’ 같은 작은 표현이 앞의 내용을 뒤집기도 해.

[이제 네 차례] “기술 심사를 통과한 업체라도 계약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이 확정되지 않는다.” 이 문장에서 선정되지 않는 업체의 조건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중요한지 써 봐.

[스스로 확인] 주체·행동·조건을 빠짐없이 가리킬 수 있다면 통과. 단지 문장을 빠르게 읽었다고 통과가 아니야.

[적용 연결] 질문이 요구한 판단을 확인하고, 지문에서 근거 위치를 찾은 다음, 선택지의 단어가 바뀌었는지 점검해. 자세한 종합 적용은 제4·5부에서 보여 줄게.

수능 국어, 이 한 장부터 바꿔 보자

제이든양 선생님 | FINAL 7 실전 수업 · 제 1 회

긴 지문을 보고 바로 읽기 시작하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바꿔 보자.

15초 행동: ① 질문 끝 확인 → ② 찾을 대상 정하기 → ③ 해당 문단 읽기 → ④ 선택지 근거 확인

질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맞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틀린 것 하나를 찾는 문제야. (시험지에는 실제로 “않은” 두 글자에 동그라미 쳐.)

선생님은 이렇게 읽어

문제가 “실제 이용한 사람이 모두 승인받은 사람인가?”를 묻는다면, 글을 읽기 전에 “승인”과 “실제 이용”이 같은 단계인지부터 확인할 준비를 해. 모든 문장을 외울 필요는 없어.

다만 글 전체의 주장이나 <보기>의 여러 조건을 함께 묻는 문제라면, 그 부분만 찾아 읽어서는 위험해. 그때는 문단 사이의 관계까지 읽는 쪽으로 바꿔야 해.

바로 따라 할 짧은 문제

가상 주민센터 이용권 안내

한 달 동안 이용권 신청자는 120 명이었다. 이 중 90 명이 승인을 받았다. 승인받은 사람 가운데 70 명이 실제로 이용권을 사용했다. 승인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용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신청자는 120 명이다.
- ② 승인된 사람은 신청자보다 적다.
- ③ 승인된 사람은 모두 이용권을 사용했다.
- ④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70 명이다.
- ⑤ 승인과 실제 이용은 구별할 수 있다.

☐ 질문의 핵심어: _____ ☐ 지문의 근거: _____

학생 체크: 답을 고르기까지 _____ 초 / 내가 확신한 이유: _____

정답만 보는 대신, 선생님의 생각을 따라가자

1 번 정답은 ③이야. “승인”은 90 명인데 “실제 사용”은 70 명이야. 20 명은 승인됐어도 사용하지 않았어. 그래서 “모두”가 사실과 어긋나.

그런데 “모두”가 들어갔다고 무조건 오답인 건 아니야. 숫자나 조건이 실제로 전원을 뒷받침하면 맞는 선택지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반드시 지문의 근거와 대조해야 해.

그 다음 문제는 무엇이 달라질까?

문제 2. 전체 신청자 가운데 실제 사용자의 비율로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25% ② 58.3% ③ 75% ④ 77.8% ⑤ 22.2%

선생님 풀이: “전체 신청자”라고 묻고 있으니 전체는 120 명이야. 실제 사용자는 70 명. 따라서 $70 \div 120 \approx 58.3\%$. 정답 ②. $70 \div 90 \approx 77.8\%$ 는 “승인자 중 사용자”를 물을 때의 비율이야.

시험장에서 딱 기억할 것

- ① “않은”을 먼저 확인해.
- ② “누구 중 누구?”라고 물으면 전체(분모)를 먼저 찾아.
- ③ 선택지가 정답처럼 보여도 근거와 다르면 버려.

왜 이 훈련을 먼저 할까?

2017~2026 기출을 정리한 기존 연구 기록에는 조건·예외, 관점 비교, 자료 해석, 〈보기〉적용 등의 질문이 반복적으로 등장해. 정확한 10 개년 빈도 순위는 원문 재검증 중이지만, 최근 난도 자료와 EBS 의 대표 문항 설명에서 이 판단 기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어.

2025 학년도 수능 국어에서는 주제통합형 독서의 관점 비교·적용 문제가 당시 이감 분석의 오답률 상위에 포함됐어. 2027 학년도 9 월 모평에서도 EBS 는 독서 8·13 번을 지문 원리를 새 사례에 적용하는 대표 문제로 설명했어.

그래서 이번 수업은 “질문을 먼저 읽는 방법”을 무작정 반복하는 게 아니라, 질문이 요구하는 행동을 먼저 결정하는 데 집중해.